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별 및 전공계열에 따른 요구의 차이

김래은¹, 구상미^{2*}

¹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²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Differences in the Needs According to Gender or Major for Development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Dating Violence of University Students

Rae-Eun Kim¹, Sang-Mee Koo^{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1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1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대학생의 성별 및 전공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요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인문사회계열 및 보건계열 학생들로, 남학생 220명, 여학생 131명, 총 351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시기,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설문을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성별 및 전공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요구는 오픈 카카오톡을 활용한 개인 상담과 체험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모든 하위요인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의 요구는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상담과 체험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보건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모든 하위요인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인문사회계열 학생, 보건계열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needs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the gender and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health care students in U university, which included 220 male students, 131 female students, and a total of 351 students. The research tool produced and surveyed the questionnaire about the timing,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about prevention of dating violence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For data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demands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mands of teaching methods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gender in personal counseling and experience activities using open KakaoTalk. The wo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en in all sub-factors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mands of teaching methods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major in personal counseling and experience activities using open KakaoTalk. The health car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l sub-factors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a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ents.

Key Words :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Needs Analysis, Male University Student, Female University stud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tudent, Health Car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Sang-Mee Koo(ksm@u1.ac.kr)

Received December 12,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Revised December 31, 2019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이성 교제 중 데이트는 미혼남녀에게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한 경험으로 대학생은 데이트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기대한다. 발달 단계 상 성인초기에 속하는 대학생에 있어 건강한 데이트 경험은 전반적인 대인관계를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며,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1-3]. 데이트 경험은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관계이므로[3] 그만큼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심한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와 좌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은 데이트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폭력을 말한다[4].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으로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와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문제화하기 어렵다[5]. 2017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보고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절반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도 상대와 결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7.4%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절반이상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조사결과는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의 전조이며,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중에서 상당수는 데이트 상대에 의해 일어나지만[5,6,7],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민감도는 가정폭력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선행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의 원인 및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8,9], 학교폭력 경험[10], 아동학대 경험[11,12], 성역할 고정관념[13,14], 성적 자기주장[13,14]이 있으며, 최근 폭력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1,2,3,15]이 폭력관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 행위가 폭력적임을 분명히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2],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데이트 폭력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행동이 결정되며, 폭력의 재발

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교육으로[16], 외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13], 데이트폭력의 실태, 성별 및 전공, 학년에 따른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나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17]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건강한 데이트문화 형성을 위한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개발에 앞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선행연구[18,19]에서 가정폭력에서 남성이 주 가해자인 것과 달리 청소년 및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은 남녀 모두 가해와 피해를 상호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조사[6]에서 데이트 성희롱 가해경험과 성추행은 남녀 모두에게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예방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데이트폭력 인식이나 가해경험,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7], 전공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연구는 없었으나, 보건계열과 인문사회계의 교과과정과 실습경험에 따라 선행지식이 다르며, 교육에 대한 요구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별 및 전공의 차이를 토대로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인식 및 신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심각성과 민감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생에게 있어 데이트 폭력의 경험은 스트레스 증가, 대학생할 부적응 및 학업지장, 원치 않는 임신 등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요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요구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요구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및 현재까지 만난 이성교제 수 및 현재 이성교제 유무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gender, major, and grade University students

Variable	N	%	
Gender	male	220	62.7
	female	131	37.3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98	56.4
	health care	153	43.6
Grade	1	158	45.0
	2	67	19.1
	3	89	25.4
	4	37	10.5
	0	11	3.1
Number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we have met so far	1-3	174	49.5
	4-6	108	33.6
	7-9	26	7.4
	over 10	32	6.4
Number of intercourse	yes	133	37.9
	no	227	62.1

Table 1에 의하면, 성별은 남자가 220명(62.7%)이었고, 여자는 131명(37.3%)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198명(56.4%), 보건계열 학생은 153명(43.6%)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158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67명(19.1%), 3학년이 89명(25.4%), 4학년이 37명(10.5%)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까지 만난 이성교제 수는 1~3명이 174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4~6명이 108명(33.6%), 10명 이상이 32명(6.4%), 7~9명이 26명(7.4%)이었으며, 0명이 11명(3.1%)으로 가장 적었으며, 현재 이성교제 유무는 '있다'가 133명(37.9%)이었고, '없다'가 227명(62.1%)이었다.

2.2 연구도구

연구자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19]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문항의 구성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교수법, 교육 내용, 교육방법 및 시기 등의 총 11문항이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5점)로 배점하였다.

2.3 연구절차

연구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표본 수는 총 205명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 351명은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사회복지학과, 경찰사방행정학부, 스포츠학부 등)과 보건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에 재학 중인 남 학생 240명, 여학생 150명 총 39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이후 같은 번호를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등 부실 기재된 설문지 및 설문을 거부한 대학생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설문지는 남학생 220명, 여학생 131명, 총 351명이었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이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수(백분율)를 산출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 및 전공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교차분석(Pearson X^2)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차이

대학생의 성별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횟수에 대한 요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difference of needs of the education numbers of program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Male (%)	Female (%)	Total (%)	χ^2
1-2 times a week	8 (3.6)	3 (2.3)	11 (3.1)	.62
1-2 times a month	50 (22.7)	30 (22.9)	80 (22.8)	
1-2 times per semester	131 (59.5)	81 (61.8)	212 (60.4)	
3-4 times a semester	22 (10.0)	12 (9.2)	34 (9.7)	
Once a year	9 (4.1)	5 (3.8)	14 (4.0)	
Sum	220 (100)	131 (100)	352 (200)	

df=4, * p<.05

Table 2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별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는 남자 131명과 여자 모두 1 학기에 1, 2번을 각 131명(59.5%), 81명(61.8%)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남자와 여자 간에 각 항목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2, p>.05$).

대학생의 성별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별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은 남자와 여자 모두 전문가 강의를 각각 109명(49.5%), 56명(42.7%)로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상담($\chi^2=7.26, p<.05$)과 체험활동(역할극)($\chi^2=4.05, p<.05$)에서만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문가 강의, 시청각 강의, 온라인 강의, 주제별 토론, 어플을 통한 상담 모두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needs of teaching methods of program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Male (%)	Female (%)	Total (%)	χ^2
Expert lecture	don't want 111 (50.5)	75 (57.3)	186 (53.0)	1.52
	want 109 (49.5)	56 (42.7)	165 (47.0)	
Audiovisual lectures	don't want 156 (70.9)	88 (67.2)	244 (69.5)	.54
	want 64 (29.1)	43 (32.8)	107 (30.5)	

Online lecture	don't want 192 (87.3)	114 (87.0)	306 (87.2)	.01
	want 28 (12.7)	17 (13.0)	45 (12.8)	
Thematic discussion	don't want 190 (86.4)	112 (85.5)	302 (86.0)	.05
	want 30 (13.6)	19 (14.5)	49 (14.0)	
Personal counseling through open kakaotalk	don't want 155 (70.5)	75 (57.3)	230 (65.5)	7.26*
	want 65 (29.5)	56 (42.7)	121 (34.5)	
Real activity (role play)	don't want 191 (86.8)	103 (78.6)	294 (83.8)	4.05
	want 29 (13.2)	28 (21.4)	57 (16.2)	
Consult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don't want 198 (90.0)	118 (90.1)	316 (90.0)	.01
	want 22 (10.0)	13 (9.9)	35 (10.0)	
Sum	220 (100)	131 (100)	352 (200)	-

df=1, * p<.05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여자는 데이트폭력 개념, 실태 및 후유증에 대한 요구가 만점 5점을 기준으로 평균 4.65(SD=.63)로 가장 높았고, 남자는 성적 자기결정이 평균 4.25(SD=.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성역할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각각 평균 3.85(SD=.89), 4.22(SD=.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모든 하위요인 내용을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difference of needs of education contents of program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Male			Female			t
	N	M	SD	N	M	SD	
Gender role attitudes and gender equality	220	3.85	.89	131	4.22	.86	-3.82 ***
Sexual self-determination	220	4.12	.86	131	4.52	.69	-4.54 ***
Heterosexual conflict (anger and attack)	220	4.12	.84	131	4.46	.74	-3.79 ***
Violence concepts and types of violent behavior	220	4.09	.92	131	4.39	.84	-3.04 **

Date violence concept, actual conditions and sequelae	220	4.21	.85	131	4.65	.63	-5.00 ***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220	4.21	.85	131	4.54	.70	-3.79 ***
Report process for dating violence	220	4.24	.88	131	4.53	.75	-3.25 **
Self-assertive training	220	4.25	.85	131	4.56	.71	-3.48 **

p<.01, *p<.001

3.2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간의 차이

대학생의 전공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difference of needs of the education numbers of program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ccording to major

Variabl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Health care (%)	Total (%)	X ²
1-2 times a week	7 (3.5)	4 (2.6)	11 (3.1)	3.84
1-2 times a month	51 (25.8)	29 (19.0)	80 (22.8)	
1-2 times per semester	111 (56.1)	101 (66.0)	212 (60.4)	
3-4 times a semester	20 (10.1)	14 (9.2)	34 (9.7)	
Once a year	9 (4.5)	5 (3.3)	14 (4.0)	
Sum	198 (100)	153 (100)	352 (100)	

df=4

Table 5에 의하면, 대학생의 전공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는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건계열 학생 모두 1학기에 1, 2번을 각 111명(56.1%), 101명(66.0%)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두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2=3.84, p>.05$).

대학생의 전공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의하면,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은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

건계열 학생 모두 전문가 강의를 각각 99명(50%), 66명(43.1%)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체험활동(역할극)($X^2=12.58, p<.001$)에서만 두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전문가 강의, 시청각 강의, 온라인 강의, 주제별 토론,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상담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 모두 두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difference of needs of teaching methods of program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ccording to major

Variabl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Health care (%)	Total (%)	X ²
Expert lecture	don't want	99 (50.0)	87 (56.9)	186 (53.0)	1.63
	want	99 (50.0)	66 (43.1)	165 (47.0)	
Audiovisual lectures	don't want	141 (71.2)	103 (67.3)	244 (69.5)	.62
	want	57 (28.8)	50 (32.7)	107 (30.5)	
Online lecture	don't want	169 (85.4)	137 (89.5)	306 (87.2)	1.36
	want	29 (14.6)	16 (10.5)	45 (12.8)	
Thematic discussion	don't want	174 (87.9)	128 (83.7)	302 (86.0)	1.28
	want	24 (12.1)	25 (16.3)	49 (14.0)	
Personal counseling through open kakaotalk	don't want	138 (69.7)	92 (60.1)	230 (65.5)	3.50
	want	60 (30.3)	61 (39.9)	121 (34.5)	
Real activity (role play)	don't want	178 (89.9)	116 (75.8)	294 (83.8)	12.58 ***
	want	20 (10.1)	37 (24.2)	57 (16.2)	
Consult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don't want	178 (89.9)	138 (90.2)	316 (90.0)	.01
	want	20 (10.1)	15 (9.8)	35 (10.0)	
Sum		198 (100)	153 (100)	352 (100)	-

df=1, *** p<.001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의하면,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데이트폭력 개념, 실태 및 후유증에 대한 요구가 만점 5점을 기준으로 평균 4.27(SD=.83)로 가장 높았고, 보

건계열 학생은 데이트폭력 개념, 실태 및 후유증, 데이트폭력 상황 알아차리기,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요구가 모두 평균 4.52(SD=.77, SD=.75, SD=.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건계열 학생 모두 성역할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각각 평균 3.83(SD=.84), 4.19(SD=.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모든 하위요인 내용을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difference of needs of education contents of program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ccording to major

Variabl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ealth care			t
	N	M	SD	N	M	SD	
Gender role attitudes and gender equality	198	3.83	.84	153	4.19	.93	-3.88 ***
Sexual self-determination	198	4.10	.85	153	4.50	.73	-4.72 ***
Heterosexual conflict (anger and attack)	198	4.12	.84	153	4.41	.76	-3.35 **
Violence concepts and types of violent behavior	198	4.10	.89	153	4.34	.90	-2.53 *
Date violence concept, actual conditions and sequelae	198	4.27	.83	153	4.52	.77	-2.86 **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198	4.20	.83	153	4.52	.75	-3.79 ***
Report process for dating violence	198	4.23	.87	153	4.50	.78	-2.95 **
Self-assertive training	198	4.24	.85	153	4.52	.74	-3.11 **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성별 및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으며, 성교경험은 전체의 37.9%정도로 [3]의 연구와 비슷한

수치이다. 대학생의 성별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에 대한 요구는 남자와 여자 모두 1학기에 1, 2번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남자와 여자 간에 각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성별과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는 남자와 여자 모두 '전문가 강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전문가 강의, 시청각 강의, 온라인 강의, 주제별 토론, 어플을 통한 상담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상담'과 '체험활동(역할극)'에서만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에서는 대학생들은 모두 전문가 강의를 가장 선호하며, 남자보다 남여가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상담과 '역할극 등의 체험활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역할극 등 체험활동과 개인상담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남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후에 전문가가 개인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교육 운영 시 남학생들은 정규교양교과목으로 지정된 체계적인 교육, 전문상담 기구설치, 영상매체를 이용 순으로 원했으며, 여학생은 전문가를 초빙한 특별강연, 교양교과목으로 지정된 체계적인 교육, 전문상담 기구설치를 위해 교육방법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 전문가 강의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에서의 교육 담당자로 적합한 자는 성교육 전문가 및 간호학과 교수, 산부인과 교수 및 의료인으로 등으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 요구가 높다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려면,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시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모든 하위요인 내용을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였고[3], 여학생이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았다[21]는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여자는 '데이트폭력 개념, 실태 및 후유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남자는 '성적 자기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성역할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설문 시 데이트폭력의 후유증에는 임신과 피임, 낙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임신, 피임, 유산, 출산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는 [1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활발한 성생활을 하면서도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방법을 몰라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대학생 대상의 성교육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시 정확한 피임에 대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임태도와 자기주장(거절하는 방법)훈련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22]에서와 같이, 교육을 통해 피임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높일 때 거절하는 방법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생이 피임교육이나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3], 데이트폭력의 후유증으로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며,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을 볼 때, 기존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19,21]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단편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에 관한 가치관을 세우고, 성지식을 얻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 인터넷, 매스컴, 가정에서의 교육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인이 되기 전 대학에서의 성교육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대학에서의 성교육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된 체계적이면서도 대상자 즉, 대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이어야 하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 녀 차이를 고려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법 및 교육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에 대한 요구는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건계열 학생 모두 '1학기에 1, 2번'을 가장 많이 요구하

였고, 두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육 횟수에 대해 전공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두 전공 모두 유사한 횟수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는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건계열 학생 모두 '전문가 강의'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전문가 강의, 시청각 강의, 온라인 강의, 주제별 토론,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상담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 모두 두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체험활동(역할극)'에서만 두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보건계열 학생들이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수법 중 '역할극 등의 체험활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열별로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려우나 교육내용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데이트폭력 상황 알아차리기'나 '거절하는 훈련 방법'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역할극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이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시사한다. 즉, 데이트폭력 상황을 체감하고 인식하는 훈련은 모든 데이트폭력 행동(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교수법이다. 따라서 향후 역할극 등을 통한 실제 체험학습을 통해 남녀 간의 안전한 데이트 생활, 바람직한 이별에 대한 연습 등의 훈련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는 실제 임상실습 등을 주로 다루는 보건계열 학생의 요구가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데이트폭력 개념, 실태 및 후유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보건계열 학생은 '데이트폭력 개념, 실태 및 후유증', '데이트폭력 상황 알아차리기',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건계열 학생 모두 '성역할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보건계열 학생이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모든 하위요인 내용을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의 전공교육과정에서 생식생리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타 전공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등 전공과 상관없이 피임과 성병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왔다[20]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들에게도 모든 데이트폭력예방의 중요한 교육내용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같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나 일반전공 대학생이나 데이트폭력 가해 및 경험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23, 24], 향후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발생과 그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정책적으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른 심도 있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폭력에 대한 인식과 폭력허용도에 대한 조사 및 이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대학 캠퍼스 내 주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하여 이를 반영한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J. Ha & M. K. Seo. (2014).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30(4), 79-103.
- [2] C. Y. Lim, M. S. Lee & S. Y. Jung. (2010).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 147-179.
- [3] H. J. Lee, M. S. Yoon, Y. E. Kim & S. Y. Lee.(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15-125.
- [4] M. A. Straus.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 790-811.
- [5] S. H. Bae.(2015). An analysis of reality and Discourse about sexual violence on dating relationships: Korean Case. *Gender Research*, 20, 57-69.
- [6] H. Y. Kang & S. J. Park.(2017). *Survey on the date violence damage of women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 [7] H. M. Nam.(2003).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Ehwa University, Seoul.
- [8] S. K.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addiction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dating violence; in accordance with sex*. Master dissertation. Jeju University, Jeju.
- [9] Y. H. Jin.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Master dissertation. Kwnagwoon University, Seoul.
- [10] D. K. Kim & E. H. Shagong. (2007). A study on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e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99-124.
- [11] K. H. Seo, S. D. Choi & I. H. Kim.(2007). Influences of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domestic violence on dating relationship and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1), 153-170.
- [12] J. Yoon, S. Y. Yang & B. K. Park. (2012).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patriarchal gender role attitude, and inferiority complex on acceptability of college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79-107.
- [13] S. Y. Jung, C. Y. Lim & M. S. Lee. (2011).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27(4), 127-151.
- [14] K. S. Son & S. M. Jeong. (2016).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1(3), 441-457.

- [15] J. Y. Kang. (2019).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Jeju University, Jeju.
- [16] H. Y. Jung & H. S. Min. (2013). Development & evaluation of web-base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27-639.
- [17] A. R. Koh. (2018). *A survey of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Kimhae.
- [18] S. A. Jang & K. S. Lee. (2019).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teen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789-819.
- [19] Cheongju University Gender Equality Counseling Center. (2015). *Survey on sexual consciousness in Cheongju university in 2015*. 1-35.
- [20] J. S. Lee. (2003).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21] Y. S. Bang. (2010). Survey on sexual consciousness in Cheongju university in 2010. *Student Life Research*, 32, 115-139.
- [22] M. H. Choi. (2004).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3] K. H. Jung & M. K. Kang. (2018).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 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3-42.
- [24] H. S. Kang & E. S. Lee. (2014).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3(4), 288-298.

김 래 은(Rae-Eun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사교육, 교수매체, 건강교육 프로그램
- E-Mail : versus486@u1.ac.kr

구 상 미(Sang-Mee Koo)

[정회원]



- 2015년 8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간호관리학
- E-Mail : ksm@u1.ac.kr